벼랑 끝 위기 제주경제에 재도약 기틀

도, 코로나 피해 업종·계층 지원에 1조원 투입 재정·금융·고용·소비진작 통해 민생회복 유도

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코로나19 로 인해 힘들어진 제주경제회복에 1조원을 투자한다.

19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계층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목표로 약 1조원 규모의 경제회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.

단기 지원책을 중심으로 재정・ 금융·고용·세제 및 소비 진작을 통 해 빠른 민생회복을 지원한다.

우선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 해 정부 손실보상과 연계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.

도내 중소기업들에게 금융 지원

도 추진한다. 경영안정자금 상환 유예와 세제 지원, 공유재산 사용 료 감면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생존을 지원할 방침이다.

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농민수당 지원 224억 원(1인당 연 40만 원)을 지원, 농업 인의 영농 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 을 불어넣고, 고품질 청정 농산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 들어 나갈 예정이다.

아울러 올해 전체 예산의 61%를 상반기에 집행해 공공재정이 경제회

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. 제주의 성장동력 확보에도 주력 한다. 제주형 뉴딜 2.0 시행으로 드 론, 인공지능, 확장(XR)현실과 같 은 디지털기술을 적극 활용해 민· 관 협력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, 확

산시켜 나갈 방침이다.

제주도 관계자는 "제주경제 회복 방안을 마련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에 주력할 예정"이라 며 "금주 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 하겠다"고 말했다.

고대로기자 bigroad@ihalla.com

도시관리계획 재정비… 내년 중 고시

서귀포시 관련 용역 착수

서귀포시는 내년 하반기 고시할 예 정으로 '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' 재정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.

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고, 올해 재정비(안)을 수립한다. 이어 내년 상반기에 제주도의회의 의견 청취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 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.

시는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

민의견을 수렴해 사업 계획에 충실 히 반영하기 위해 읍•면•동 주민센 터와 주민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업체계를 갖췄다.

의견을 제시할 시민들은 기존에 시는 지난해 5월 서귀포 도시관 지정된 용도지역·지구, 지구단위계 획,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불합리한 사항, 주민 불편사항, 지역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읍·면·동이 나 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6월 30일까지 제출하 면 된다.

백금탁기자 haru@ihalla.com

농촌 일손돕기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

서귀포시 내달 9일까지

서귀포시가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 를 위해 오는 2월 9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수요조사에 나선다.

19일 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지역 소재 농가・농업법인을 비롯해 결혼이민자 등이다. 지원은 시설원 예·과수·일반 채소·기타 원예·특 작 등 외국인 근로자 허용 대상 농

업 분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을 희망하는 경우 가능하다.

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.

이에 따라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 확정 후 사업 참 여 농가・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과 사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처 외국 인 계절근로자를 현장에 배치할 계 획이다. 백금탁기자



겨울 하도리포구 풍경 19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포구를 찾은 관광객이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고 있다.

강희만기자

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제주시 다호마을 개선사업

제주시는 예산 3억원을 투입, 상습 침수 피해지역인 도두동 다호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3월 중 개선사업 공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.

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다 호마을은 지형적인 원인으로 집중 호우 발생 시 인근 도령모루(해태 동산) 등 상류에서 많은 우수가 마 을로 유입되면서 저지대 일부 도로 및 상가 등의 침수 피해가 지속적 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.

들어가 우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. 이번 사업을 통해 기 존 설치된 우수펌프(3.4톤/분) 용 량을 증설(8톤/분)하고 우수침투 조를 설치 침수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.

자칫하단 건축신고 미착공건축물 효력상실

제주시지역 올 상반기 효력상실 건축물 211건 내용 제대로 몰라 마찰 초래… 사전 안내 강화

제주시 지역에서 올 상반기내 효력 상실 만료 예정인 건축신고 미착공 건축물이 2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 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규정 시는 이에따라 이달 실시설계에 돼있고, 해당될 경우 건축행정시스 템(세움터) 상에서도 자동으로 효 력이 상실된다. 다만 건축주의 요 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 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력상실 전 사전에 내용을 미리 알 려주는 절차가 없었다. 이런 이유 등으로 이를 확인하지 못한 민원인 들과 잦은 마찰은 물론 효력상실 건축법에는 건축 신고일로부터 1 후 건축신고 절차를 새로 이행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.

시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 효력상실 만료 예정인 건축신고 미 착공 건축물에 대한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. 건 축신고 미착공 건축물 사전 안내는 시민들의 시간·경제적 손실을 예방 하는 등 시민편의를 위해 실시된 시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신고 효 다. 시가 파악한 건축신고 미착공

건축물은 동지역 18건, 읍면지역 193건 등 모두 211건이다.

건축신고 미착공 건축물 사전 안 내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해 건 축신고 6개월 전 효력상실 현황을 추출하여 건축주나 설계자 등 건축 관계자에게 우편 및 SMS문자전송 등 사전안내를 실시한다. 이를 통 해 시민들과의 갈등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민원을 원활히 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시 건축과 관계자는 "앞으로 건 축허가·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만료 안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"이 라며 "시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적 극 행정을 펼쳐 업무처리 방안을 개선해 나갈 것"이라고 말했다.

이윤형기자 yhlee@ihalla.com

NAVER DOM

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파킹시스템 구축 서귀포시, 154억 투입 교통시설 디지털 기술 접목

서귀포시가 올해 교통시설 스마트 화에 154억원, 민간 주차장 조성 지 원에 9억원 등을 각각 투입한다. 특 히 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을 접목한 스마트-파킹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차로 알리미 등의 시범 사업도 운영한다.

시는 올해 143억원, 2023년 143억 원, 2024년 50억원 등 앞으로 3년간 300억원을 투입해 서귀포형 AI기 축사업, 숲속 그린스마트주차장, 퐁 라고 19일 밝혔다.

시는 서홍동주민센터 인근 옛 한 전사옥 부지에 150억원을 들여 디 지털 통합 주차 관제 센터 신축, 노 또 동홍동 지역에 110억원을 투자 투입한다.

해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(100여 면)을 만들고, 퐁낭 공영주차장 복 층화 사업(124면)에는 40억원을 투 입할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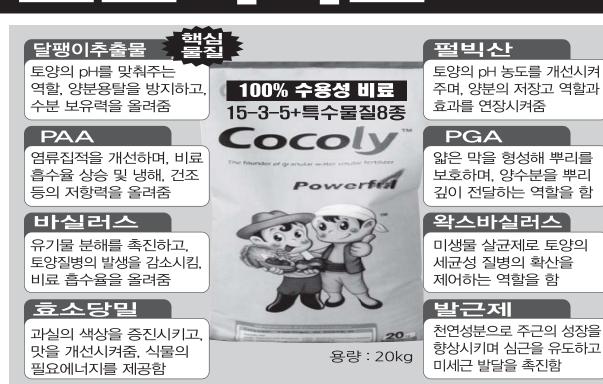
시는 이와 함께 사람중심의 스마 트 교통안전 시설 확충을 위해 11 억여원을 들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. 특히 경찰의 도움을 받아 사고다발지역 3곳을 선정해 보행자 교통사고 방 반 차세대 스마트-파킹 시스템 구 지 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.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60 낭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등 교 ~70%를 점유하고 있어 횡단보도에 통기반시설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 차량진입을 알리는 위험신호를 보 행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이다.

시는 민간 보유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에 7억원, 무료개방주차장 및 주차 외주차장(100여면) 등을 조성한다. 장 설치 지원사업에 2억원을 각각 백금탁기자



120년의 역사 [독일수입]





코코리

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[']왁스바실러스[']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

>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

농가작업인부 지원 (과수원 밭작업)

검색

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(주) 제주시 정실동길75(애조로) 오라CC사거리 동쪽 Tel: 745-8900, H.P: 010-9258-7508